

초대의 글

**“이웃과 함께 하며 오시는 이에게 행복을 가득히 주는
국제소망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소망교회는 삶속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와서 참된 안식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국제소망교회는 영혼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제소망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대안학교와 방과후 교실 및 악기교실을 운영하여 글러벌 리더로 키우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국제소망교회를 늘 기억해주시고, 부담을 갖지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저와 교우들은 여러분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성규 목사 드림

예배시간 안내

| | | |
|---------------|--|-----------|
| 주 일 예 배 | 주일(1부) 09:00, (2부) 11:00 (저녁예배) 19:00 | 국제소망교회 본당 |
| 수 요 저 녀 예 배 | 수요일(1부) 11시 (2부) 19시 | 국제소망교회 본당 |
| 금 요 성령 충만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시 | 국제소망교회 본당 |
| 매일 새벽, 저녁기도회 | 월~금요일 6시, 19시 | 국제소망교회 본당 |

Profile



최성규 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왔고, 한국부흥사 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유인대학교 Ph. D 과정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하였다.

서울 방배동 일광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겼고, 부천 괴안동에서 삼익교회를 설립하여 11년 동안 성장시켰으며, 2003년 1월에 국제소망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영적훈련으로 성도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육하고 있으며, 국내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로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2023. 04. 30.

제 23-18



국제소망교회

International Hope Church

표 어 :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해!(행 9:31)



담임목사 최 성 규

문서선교:이윤형목사, 목장교회·전도폭발:안명준목사, 새신자(VIP):서형종목사
국제문화원:유찬양목사, 중고등청년부:에스더 송목사, 반주:최세연간사
영아·유치부:장진아전도사, 유년·초등부:최승빈전도사 / 찬양단리더:노민주자매
방송미디어:이상학전도사, 최다니엘, 장애우·실버담당:김예일전도사,

경기도 평택시 함박산로 153(고덕동) 010-3932-3927, 031-663-3928

E-mail:samiak12@dauml.net / 홈페이지 : 다음 국제소망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0시 45분

집례 : 최성규 목사

경배와 찬양 소 망 찬 양 단

- * 찬 송 < 찬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 같 이
- * 예배의 부름 < 시 84:4-5 > 집 례 자
- * 송 영 오케스트라
- * 기 원 집 례 자
- * 찬 송 < 찬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 다 같 이
- * 교 독 문 < 2번 시 2편 > 다 같 이
- * 신앙고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 찬 송 <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다 같 이
- 대 표 기 도 민승진 집사
- 성 경 봉 독 < 빌 1:20-26 > 집 례 자
- 특 송 오 케 스트 라
- 생명의 말씀 < 삶과 죽음 > 최성규 목사
- 봉헌(찬양연주)예물 < 헌금위원/색소폰연주 > 다 같 이
- 인사 및 새가족 환영 <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 집 례 자
- 교 회 소 식 집 례 자
- * 회 중 찬 송 < 챔버오케스트라 / 492장 > 다 같 이
- * 축 도 < 송영반주:챔버오케스트라 > 최성규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국제소망교회 10대 확신 암송구절

1. 구원의 확신(요일 5:12-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2. 사죄의 확신(롬 8:34-35 누가 정죄하리요 족속일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 기도 응답의 확신(요 16:23-24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4. 승리의 확신(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인도의 확신(잠 3:5-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6. 임마누엘의 확신(히 13:5-6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 권능의 확신(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8. 축복의 확신(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 전도의 확신(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0. 행복의 확신(엡 1:3-4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은 10대 확신 말씀을 늘 암송하고 누립니다

새생명의 나눔의 시간

〈 어린이 예배 5월 7일 주일부터 오전 11시에
1층 어린이예배실 〉
〈 새가족 조명단 〉
4월 30일 주일오후 1시 30분

| | |
|-------------|--------------|
| 남 선 교 회 | 양육자 : 최근영 집사 |
| 여 선 교 회 | 양육자 : 오재금 사모 |
| 학 생 , 청 년 회 | 양육자 : 이선영 집사 |
| 교 역 자 회 | 양육자 : 최성규 목사 |

〈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 매주 토요일 〉

| | |
|-------------|---|
| 남 선 교 회 | 1층 전체, 소예배실, 화단, 남녀화장실, 로비 |
| 여 선 교 회 | 3층 전체, 청년부실, 3층 계단 |
| 학 생 , 청 년 회 | 2층 전체, 대예배실, 새가족실, 교역자실, 힐링센터, 기도실, 2층계단 |

〈 수요일예배 〉

1부 : 오전 11시 찬양인도 : 이상학 전도사 설교 : 에스더 송목사
2부 : 저녁 7시 찬양인도 : 이상학 전도사 설교 : 최성규 목사

다음 주일예배 청지기

안내 위원 : 서형종 목사, 에스더송 목사
봉헌 찬양 : 비올라 정순재 연주
봉헌 위원 : 민승진 집사, 이송희 자매, 정서영 자매
다음주기도 : 최근영 집사

교 회 소 식

2023년 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해(행 9:31)

1.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Vip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임목사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2. 김봉임 모배님이 4월 24일 새벽에 천국입성하셨습니다.
3. 어린이 예배는 5월 7일 주일부터 오전 11시 1층 어린이예배실에서 합니다.
4.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전도를 합니다.
5. 새로 나오신 분들은 VIP안내위원들에게 새생명의 길을 신청바랍니다.
새생명을 마치신 분들은 오늘(23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새가족의 길을 나눕니다.
6. 예배후에 성도의 식탁교제가 3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 현금계좌 : 기독교한국침례회소망교회 농협 355-0083-4167-23

= 문화원 강좌 안내 =

레슨방식 : 확실한 개인별지도 50분 레슨기준(주1회)
강 사 : 과목별 대학전공 교사
강좌과목 : 바이올린, 플룻, 첼로, 기타, 드럼, 색소폰,
재즈피아노, 보컬(찬양), 학생미술
강좌시간 : (수)14~16시, (토)10~14시, (일)13~16시
문화선교현금 : 등록교인 월 6만원, 외부회원 월 8만원
등록(접수, 상담) : 010-4744-7575 유찬양 원장

성경에서의 질문(7)

질문 /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명의 헤롯이 나온다. 누가 누구일까?

답변 /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한다. 헤롯은 흔히 '헤롯 왕조'라 불리는데, 4명이 유대 땅을 지배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터라 로마에서 일정한 권력을 쥐어주고, 세금을 받았다.

1. 헤롯 대왕 /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살육한 사람. 갈릴리의 첫번째 총독(마 2:1-18)이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요셉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에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했다.

2. 헤롯 안티파스 / 흔히 분봉왕 헤롯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다. 형을 죽이고, 형수와 결혼해서 권력을 찬탈했고, 침례 요한에게 여러 차례 책망을 받았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사역 동안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고, 헤로디아의 꾀에 빠져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다. 애슈넬에서 '여우'라고 부른 사람이다(마 14:1-12; 눅 13:32).

3. 헤롯 아그립바 1세 /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사도행전에 등장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다. 연설을 한 후 신의 음성이란 찬사를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주의 천사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행 12:1-5)이다.

4. 헤롯 아그립바 2세 / 총독 베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은 사람이다(행 25:13-26:32).

앞에 두 사람은 복음서에, 뒤에 두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온다.

신 앙 상 담(3)

Q :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TV를 보는 게 너무나 재미있고 좋습니다. 뉴스, 드라마, 영화, 토크쇼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A :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아이폰 등은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의 첨단이기들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위대한 문명의 이기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해악을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나이트의 발명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하려는 데 동기가 있었지만 점차 그것은 대량 살상무기로 얼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것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경우 역시 긍정적 기여를 다 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악영향도 심각합니다. 악플러들이 쏟아내는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집단이나 공동체가 악성공격으로 흥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악플 한 줄 때문에 목숨까지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TV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스, 취미, 오락,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TV시청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프로나에 있습니다. 선정적 문화와 폭력적 영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도 악성바이러스에 세뇌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TV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신의 영성과 신앙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TV에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퇴보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관계가 소홀해집니다. TV나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은 TV에 빼앗긴 엄마, 그리고 대화가 단절된 엄마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TV 중독에서 헤어 나시기 바랍니다.

경험자들 말에 의하면 TV 중독도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고3 아들을 둔 어떤 엄마는 아들이 공부하는 시간 내내 TV를 켜지 않고 함께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성경필사도 끝냈습니다. TV시청을 죄악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와 신앙관리가 소홀해지고 흔들리는 것은 과감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곧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